

초치기

Written&directed

By

도정민

Prologue INT. 교실 - 낮 (Series of Scenes)

칠판 앞에 놓인 시계, 수능 시험이 치루어지고 있는 교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하고 아 날로그 시계 소리만 울린다. 시계의 초침이 숫자 5를 가리킨다. ‘콜록’. 또 몇 초 뒤 숫자 1을 가리킨다. ‘콜록’. 고이준(19,남)의 펜이 바빠진다. OMR 카드의 5번에, 또 1번에 마 킹 한다.

- 교실 복도, 교실로 들어가는 시험감독의 발
- 긴장한 표정의 이준
- 칠판 앞에 놓인 시계, 시험 시작 정각을 가리킴
- 시험지를 배부하는 학생들
-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샤프
- 시험지를 한 장 넘기는 학생
- 초침이 숫자 5를 가리키는 시계
- 헛기침하는 학생의 입
- 기침 소리에 짜증나 보이는 한 학생
- OMR 카드 5번에 마킹 하는 이준
- 초침이 숫자 1을 가리키는 시계
- 이준의 귀
- OMR 카드 1번에 마킹 하는 이준

TITLE IN:

1 INT. 강의실 - 낮 ~ 해질녘 오후

커다란 계단식 강의실 안, 첫 대학생활에 들뜬 신입생들의 목소리로 왁자지껄하다. 고이 준(20,남)은 동기들과 가볍게 인사하며 강의실에 들어선다. 강의실 앞 문으로 큰 키에 안경을 쓴 교수가 들어오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듯 크게 헛기침을 한다. 시 끄럽던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진다. 교수님은 무심하게 학생들의 출석을 부르기 시작한다.

교수 고이준.

이준 네!

(CUT TO)

교수 우리 분반 시험은 8주차 이 시간에 봅시다. 시험 범위가 꽤 되니까 다들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교수님의 시험 안내와 함께 수업은 끝이 났고, 금방 가방을 싸 강의실을 나가려는 이준

을 부르는 동기 이민혁(20,남)과 김준우(21,남)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혁 이준! 우리 오늘 너네 집에서 술 마실건데 너도 올거지?

이준 아 뭐래, (슬쩍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나 도서관 갈거야.

준우 응? 아니 무슨 신입생이 개강한지 얼마나 됐다고 도서관이야? 아 컨셉질하지 말고 빨리 와. 야 이민혁, 이 컨셉총 잡아.

민혁 (준우의 팔을 살짝 잡으며) 헐, 형. 아니야. 나 알았어. (가소롭다는 듯이 이준을 향해 웃으며) 너, 여친 만들러 가는거지? 막 도서관에서 운명적인 만남 그런거? 레쓰비에 쪽지 막 그런거?

준우 (웃으며) 이준 너 임마 낭만있는 새끼였구나?

민혁 (준우에게) 형, 우리도 가자. 자, 출발!

준우 (정색하며) 야, 잠깐. 레쓰비랑 포스트잇 사가야지.

이준 (민혁 준우를 제지하며 마지못해) 아, 쫘! 알았어... 술 마시자.

준우 (피식 웃고 이준에게 어깨동무하며) 그래 준아 안주는 뭘로 할까?

민혁 뭐야, 도서관 안가? 또 나만 진심이었어?

이준과 준우는 신이 난 민혁을 붙잡고 이준의 자취방으로 향한다.

2 INT. 이준의 자취방 - 저녁

다섯 평 남짓 되는 좁은 원룸에 이준, 민혁, 준우가 둥글게 앉아 배달음식과 과자, 소주를 잔뜩 펼쳐 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소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잔을 한다.

준우 너 근데 아까 그 말 진심이나?

이준 (살짝 짜증난 듯) 도서관? 가려 했지... 하여튼 도움 안되는 새끼들...

민혁 그니까, 나도 가려 했어.

이준 (실소하며) 아 그거 말고.

- 준우 미친놈아 지금 4주차야... 고딩이냐? 한 달 전부터 시험공부하게?
- 민혁 뭐야 진짜 공부하러? 야 그건 좀 오바긴 해.
- 이준 (소주를 한 잔 마시며) 공부 안하다가 시험 꼴등하면 쪽팔리잖아. 우리 과 애들 공부도 다 존나 잘할텐데.
- 준우 아 몰라, 짤이나 해. 난 지금부터 컨닝페이퍼나 만들려나.
- 민혁 (무엇인가 생각난 듯 급하게 안주를 씹어 넘기며) 야야, 형, 내가 절대 안걸리는 컨닝 방법 알려줄까? 이거 해봤는데 진짜 절대 네버 아무도 모름.
- 이준 (머뭇거리며) 그게 뭔데?
- 민혁 자 봐, 보통 컨닝페이퍼 만들면 안보이는 데에 숨기고 보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자세도 어색하고 눈이랑 고개가 자꾸 돌아가니까 걸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사이) 아무도 못 보는 곳!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여기, 내 머리 속에 컨닝페이퍼를 만들어 놓는거지.
- 이준 (실망한 듯 소주를 한 잔 쪽 들이킨다)
- 민혁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이렇게 하면 눈도 안 돌아가고 내 머리 속은 남들이 볼 수도 없으니까 이거 이거 걸릴 수가 없다 이거야.
- 준우 (지겹다는 듯) 우린 그걸 공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새끼야.
- 이준 (준우의 말에 피식 웃다가 눈에 들어온 벽시계를 잠시동안 응시한다) 너네 초치기라고 알아?
- 준우 초치기?
- 민혁 야 그것도 모르겠냐? 분위기 초친다 뭐 그거 아니야?
- 이준 말고, 저 시계 있지. 객관식 문제 풀 때 시계 초침이 정답을 가리키는 순간에, 콜록.
- 준우 (이준과 동시에) 콜록?
- 이준 (살짝 당황해 준우를 쳐다본다.)... 알아?

준우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헛기침을 하며) 어? 뭐가?

민혁 미친 나 알아. 수능 때 내 옆반에서 시험 본 친구가 누가 헛기침 겁나 한다고 개 짜증내면서 얘기했는데. 이거 꽤 유명한가보네.

이준 (움찔 하며) 너... 시험 어디서 봤는데?

민혁 나 경북고. 준우형은?

준우 (관심 없다는 듯 안주를 집어먹으며) 말 한다고 아냐?

이준 (생각이 많아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나도 경북.

민혁 (놀라며) 와 진짜? 우리 봤을 수도 있겠네. 야 개 신기하다. 이것도 운명인데 짠 한번 할까? 짠!

3 INT. 강의실 - 낮

시간이 흘러 8주차, 시험 날이다. 평소와는 달리 강의실 분위기는 조금 차분하다. 이준의 대각선 뒷자리에 민혁, 한 칸 뛰고 옆 자리엔 준우가 앉았다. 셋은 서로 눈짓으로 무언의 응원을 주고 받는다. 교수와 조교가 들어와 시험 안내를 하고, 시험지를 나누어 준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고요한 강의실 안에 시계가 가는 소리만 울린다. 정신없이 문제를 풀던 이준은 강의실 앞의 시계를 바라본다. 시계의 초침이 숫자 5를 가리킨다. '콜록'. 이준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본다. 민혁과 눈이 마주친다.

조교 학생 앞에 보세요.

이준은 머리가 멍해진다. 혹시 수능 날의 부정행위가 들킨 것일까 하는 불안감에 시험에 전혀 집중할 수 없다. 결국 이준은 시험이 모두 끝나 강의실이 텅 빌 때까지 망부석이 되어 자리에 앉아있는다

〈END〉